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국수본 시대 개막

경찰 국수본, 국가경찰위, 시·도청 현판식
 국가·자치·수사 분리...개편 체계 본격 가동
 국수본, 1차 수사권 행사...수장 없이 개시
 수사·자치 중심 시·도청...3부 체제로 운영



김창룡(왼쪽 네번째부터) 경찰청장과 박경훈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현판식에서 제막하고 있다.

4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된 경찰 치안 체계가 본격 가동했다. 시·도 경찰청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적 치안,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전문 수사 조직을 중심으로 한 1차적 경찰 수사 시대가 개막한 것이다.

이날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각 시·도청은 현판 제막 등을 통해 개편 체계 출범을 선언했다. 민생 중심 치안 활동과 책임수사,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등이 주요 열쇳말로 제시됐다.

개편 체계에서 경찰 사무는 국가, 자치, 수사 사무 지휘 계통이 분리됐다.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 자치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 사무는 국수본부장 지휘·감독을 받는 식이다.

이는 종전 경찰청장이 지휘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사무 범위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의 개편으로 평가된다. 다만 큰 틀에서는 경찰청장이 전체 경찰 사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관여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경찰 수사 사무를 총괄하는 국수본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북관과 본관 일부 사무실에서, 일부 기능은 외부 별관에서 운영된다. 국수본은 이날 현판 제막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현재 경찰은 권력기관 구조 개편으로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됐다. 국수본은 대부분 형사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막강한 핵심 기구가 되는 셈이다.

국수본은 현재 수장이 공석으로 법정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수본부장은 공모를 통한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2월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수본부장 부재 시 대리는 수사기획조정관이 한다. 하지만 아직 개편 관련 후속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차순위인 수사국장이 대리하고 있다. 수사기획조정관 대리는 수사심의관이 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국수본 현판식에서 자치경찰과 국수본 도입 등

조직 개편과 관련해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간의 인식과 자세, 제도와 문화 모두를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전 경찰위원회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 자치경찰위가 지역치안에 관한 협의체 행정기관인 반면, 국가경찰위는 경찰 정책 등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 기구 개념이다.

이날 시·도경찰청 차원에서도 명칭 변경 관련 현판 제막과 함께 조직 개편 관련 방향에 대한 선언이 잇따랐다. 시·도청은 3부 체제로 운영되면서 수사과 자치 실무 중심이 된다.

서울청은 지난 1991년 이후 약 30년 만에 공식 명칭을 기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약칭 서울경찰청)으로 이름을 바꿔 공공안전·수사·자치 3차장 체제로 운영된다. 전북경찰청 등 다른 시·도

지역도 명칭 변경과 함께 3부장 체제 운영이 이뤄진다.

시·도청은 수사 사무와 관련해 국수본 지휘 아래 전문, 책임 수사를 실행한다. 서울경찰청 금융, 반부패·공공, 강력, 마약 등 특수수사 관련 조직이 확대, 개편된 점이 주목받고 있다.

또 시·도청은 자치 사무 분리에 해당하는 '자치경찰' 도입 관련 준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일례로 서울청은 3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 자치경찰 도입 관련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후 각 시·도청은 지자체별 자치경찰위 구성 이후 보조를 맞춰 자치경찰 시범운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자치 사무 분리는 오는 7월1일 전면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서선욱기자

여수서 승용차·오토바이 충돌...2명 사상

전남 여수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4일 전남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6분께 여주시 둔덕동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후문 앞 진입로에서 A(41)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대학교직원 B(58)씨의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B씨의 차량 조수석에 탄 C(60·여)씨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량이 학교에 진입하고자 비보호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오던 A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도난 차량 타고 보이스피싱 절도책' 불법체류 외국인

도난 신고 차량으로 이동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훔쳐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가 인출해 현관문 앞에 보관한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A(2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1시50분께 광주 북구 각화동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1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불법체류자인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받고 절도책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보이스피싱 일당은 수사 기관을 사칭,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현관문 앞에 두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아파트 단지에 침입해 피해자가 보관한 현금을 훔쳤으며, SUV 차량을 이용해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SUV 차량은 폐차장에서 말소한 번호판을 바꿔 단 도난 신고 차량인 점을 파악, 추적 끝에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현관문 앞에 놓은 돈을 훔쳤다'고 범행을 일부 시인했다. 다만 '차량·번호판을 훔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대로 약속 장소에서 넘겨받은 차량이다'라고 진술했다.

학급운영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사립유치원 감사서 적발

광주 한 사립유치원이 원비초과 징수와 학급운영비 보조금 부당 수령 등의 문제로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해당 유치원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소속 원아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매월 우유비와 매년 1회 씩 졸업앨범비를 현금으로 징수·수납했는데도 이를 유치원 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채 교육청에 보고(원비)했다.

해당 유치원은 원비를 인하·동결하거나 원비 인상률(월평균 1%·2018년의 경우 1.3% 이내)을 준수한 유치원에 지원되는 학급운영비 보조금을 교육청에 신청, 총 3568만8000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

유치원은 교직원과 방과후특기적성교육 강사를 채용할 때 근무일 이전 성범죄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사를 요청, 확인한 뒤 근무하도록 해야 하지만 해당 유치원은 이를 조회하지 않거나 근무일 이후 일정기간을 지체해 조회하기도 했다.

유치장서 안경태 일부 삼킨 40대...병원 이송

울산 동부경찰서는 아버지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불명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42분께 동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아버지 B씨를 다치게 했다.

A씨는 다른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고,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중고나라에 "돈 부족해 아들과 딸 판다"...경찰 내사

어린 아이 사진 올리며 '장기판매 가능' 글
 여자아이 사진엔 성기 은어 올리기도 해
 사이트 회원, 작성자 캡처해 경찰에 신고

국내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딸과 아들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글은 현재 지워진 상태지만, 사이트 회원들은 경찰에 작성자를 신고했다.

3일 오후 1시53분께 한 작성자는 중고나라에 '제 아들 판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한 남자아이의 사진을 게재하며 "사정상 힘들어서 제 아들을 팔기로 마음먹었다"며 "협의 글은 현재 지워진 상태지만, 사이트 회원들은 경찰에 작성자를 신고했다."

이어 이 작성자는 4분 뒤 '우리집 내 딸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자아이의 사진을 올리면서 '형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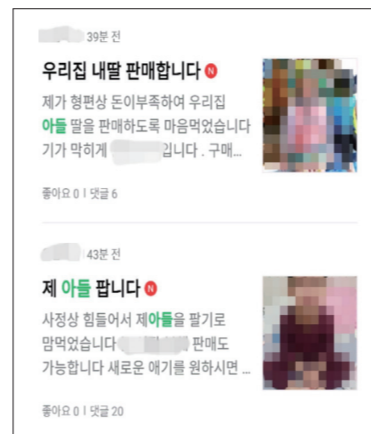
돈이 부족해 우리집 아들 딸을 판매 하도록 마음먹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아의 성기를 암시하는 은어를 올리기도 했다.

사진 속 아이들이 작성자의 친자녀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글에 사이트 회원들이 분노하자 작성자는 글을 모두 삭제했다.

한 회원은 경찰에 해당 글을 캡처해 신고했고, 경찰은 사이버수사팀에 통보조치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중고거래 모바일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36주된 신생아를 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



이 올라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글을 쓴 아이의 친모는 경찰조사에서 미혼모여서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들어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